감성과학, Vol. 13, No. 1, pp.79-90, March 2010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개인주의 감성 비교*

Cross-cultu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 among Chinese, Japanese, Netherlander and Korean

연명흠**†

Myeong-Heum Yeoun**†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College of Design, Inj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cross-cultural individualism, and consider an influence of nationality, gender and age on individualistic propensity. The survey data include 271 Chinese, 251 Japanese, 262 Netherlander and 267 Korean.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named *independent action, profit and opinion, indifference on other* and *will*, were found out. The result of comparison on nationality, Netherlander and Japanese has a strong individualistic propensity, and Korean has a remarkable collective propensity. Chinese were middle grade among 4 countries. It can be said that certain factors correlated with a certain country, because Netherlander's answer on questions belonged to *profit and opinion* factor were highest, and Japanese's one belonged to *indifference* on other were highest. On gender, Man was more individualistic better than woman. On age, twenties has strong collective propensity better than other age groups. The number of significant difference on comparison among countries is 21 in 21 questions, but the number on gender or age is 6 or 7.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nationality (or culture) is most useful variable to grasp individualism.

Keywords : Individualism, Collectivism, National culture, Gender, Age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의 개인주의를 비교하여 그 차이와 원인을 고찰하고, 개인주의에 미치는 국가, 성별, 연령 등의 영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 267명, 중국 271명, 일본 251명, 네덜란드 262명의 데이터를 통계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연구이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들로 볼 수 있는 4가지 요인들('독자행동', '이익과 의사결정', '타인 무관심', '자신의 의지')을 추출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특정 국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어 국가별 비교를 통해, '네덜란드,일본>중국≫한국'의 순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여러 문항에 걸쳐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나 타인무관심 관련 문항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일본은 타인무관심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다. 한국은 가장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개인주의성향이 강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문항 중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는 국가별 비교에서는 21개 문항 모두, 성별은 6개 문항, 연령은 7개 문항으로 나타나, 국가가 개인주의 구분의 가장 유용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개인주의, 집단주의, 국가 문화, 성별, 연령

---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055-J01402).

† 교신저자 : 연명흠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E-mail : deyeoun@inje.ac.kr

TEL : 055-320-3662

FAX : 055-328-3491

1. 서론

1.1.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의 발전

사회 및 그 구성원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이나 경험적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G. Hofstede(1980, 1991)의 연구 이후의 일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경영학자인 Hofstede는 IBM사의 의뢰를 받아 1968년과 1972년 2회에 걸쳐 전 세계의 IBM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가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4개의 요인인 권력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남성성-여성성(Femininity vs. Masculinity),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를 발견하였다. Hofstede의 방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론화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이후 문화비교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틀이 되어 1980년대 이래 비교문화 연구의 주요 연구 프레임이 되었다.

이후 이 이론은 H. C. Triandis 등에 의해 심리학의 거대이론으로 발전되었다. Triandis는 호프스테드의 권력거리와 유사한 수직, 수평의 개념을 추가하여, 국가문화를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복잡성(complexity)과 치밀성(looseness-tightness)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구분을 보완하는 세부차원으로 제시하는 등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을 풍부화하고 선도하였다.

개인주의 이론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하며, 내집단을 사회의 기본적 출발점으로 취급하고,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을 갖는 반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집단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개인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보며,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갖는 사회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은 일반적으로 권력거리가 작은 탈권위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관련이 깊으며, 경제적 발전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개인주의 국가들은 서양문화권에, 대부분의 집단주의 국가들은 동양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1.2.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의 한계점

그러나 그동안 집단주의 문화라고 통칭되던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 문화도 그 내용이 다양하여, 집단주의 문화라고 동일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거나(한민 등, 2009, p.60), 동일 문화권에서도 세대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적 생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는 등(한규석, 1991에서 재인용),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단일 틀로 문화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서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이론 틀이 근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문화보편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박용구, 2007; 황달기, 1996).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개인주의 문화의 대척점으로 오랫동안 주목되어 왔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주장되어왔다.

이와 같은 타당한 지적 속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틀로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여전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화차이를 설명하는데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가 차원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서 기능해왔다.

감성연구에 있어서 개인주의 연구는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감성, 집단적 감성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감성 연구는 개인 차원 혹은 보편적 인간 차원의 감성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반면 개인주의와 같은 문화적 특질을 다루는 사회심리학 및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집단 차원의 감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감성연구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의 감성을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시도를 통해 해당 사회구성원의 포괄적인 감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감성과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감성과학 본연의 연구성과를 낳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본래 제품 인터랙션에 관한 사용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제품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하나로 국가문화, 세대(연령) 등과 함께 개인주의 성향의 정도가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위해 개인주의 설문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분석결과 개인주의는 제품 인터랙션에 관련된 사용성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주의 설문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개인주의 감성의 차이가 매우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 정도 뿐 아니라 성격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문헌연구를 추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대상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의 개인주의를 비교하여 그 차이와 원인을 고찰하고, 개인주의에 미치는 국가, 성별, 연령 등 여러 변인의 영향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의 진행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07년 3월~5월에 걸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49세 사이(1958년~1992년 출생자)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보다 어리거나 나이든 연령대는 설문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설문참가자 섭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58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이상치로 보이는 것을 제외한 639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차 조사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리서치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2008년 2월에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국가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의 3나라였다. 연령 범위는 1차조사와 동일하였다. 총 794부의 설문데이터를 얻었고, 그 중 이상이 있거나 답변이 불성실해 보이는 10부를 제외한 784부(중국 271명, 일본 251명, 네덜란드 262명)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1,2차 조사 모두 성별, 연령별 균등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 개인주의 설문 문항

No.	설문 문항
1	나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부모와 함께 나누지 않는다.
2	나는 나의 개인적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기 보다는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직업이나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다.
4	나의 행복은 나의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5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
6	나는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7	나는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 빌려 주지도 않고 빌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8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9	부모가 돈을 대주며 같이 있기를 원하더라도 자식은 일찍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개인적인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
11	나의 행복은 친구나 친척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
12	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13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집단을 떠나거나 홀로 일하는 것이 더 좋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는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15	나는 대체로 나만의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16	더 낮은 능력의 사람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낫다.
17	나의 친한 친구의 성공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부부는 일단 가정을 가지면 애정이 식어도 부부관계를 계속해야 한다.
19	되도록 나는 혼자서 일을 하고 싶다.
20	나는 친구나 친척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스럽다.
21	상사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도 자신의 일을 다 마쳤다면 퇴근해도 상관없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설문 문항은 김기옥과 윤원아(2000)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국내조사인 1차 조사에서는 이들이 개발한 23개 문항 모두를 사용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국제설문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1]을 제외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표 1).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하였다. 본

1) 제외된 2문항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충효사상은 중요하다'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셔야 한다'로서 한국적 가치관이 강하게 내포된 문항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최종 개발된 것이지만, 김기옥과 윤원아는 설문의 개발 과정에서 차재오와 정지원(1993), 성영신(1994)과 같은 국내 연구자뿐 아니라 Hui(1988), Triandis et al. (1990), Marshall & Dong(1993) 등 해외 연구자가 개발한 기존 문항을 수집하여 선별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국제 조사에 적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차 조사의 설문문항 번역은 한국어로 개발한 설문을 2~3차례의 번역과 감수과정을 거쳐 각 조사대상국의 모국어(중국어, 일본어,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의 구성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다소 상이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동으로 구성된 연령, 성별만을 다룬다.

중국과 일본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1차 조사국가인 한국과 비교하여, 동북아시아적 유사성을 발견하거나, 유사성 속에서 상세비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적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집단주의적 동양문화와 개인주의적 서양문화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서양문화권 중에서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남유럽과 달리 동양문화와의 차이가 극명하며, 인종 및 지역적 다양성이 비교적 작아 결과해석 시 문제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표와 그림에서는 편의상 중국을 CN, 일본을 JP, 네덜란드를 NL, 한국을 KR로 각각 약식 표기한다.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점수를 변인으로 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국가, 성별, 연령(10년 간격), 군집을 변인으로 하는 평균비교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또한 각 개인주의 설문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개인주의지표를 연령, 성별, 군집 등과 교차분석하거나, 상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논의에 앞서, 설문 케이스 조정과 개인주의 설문 코딩상의 특기사항을 밝혀둔다.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비해 한국 설문참가자의 케이스는 약 2.5배 가량 많았으므로, 요인분석을 비롯한 여러 분석 시 바이어스된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SPSS 케이스선택 메뉴를 이용하여 한국 케이스를 다른 3나라 수준인 267개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 분석 과정에서 639명의 한국인 케이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267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수차례 비교하였으나,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267명의 한국인 케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또한 본 설문은 긍정적인 답변(5점)을 할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으나, 18번 문항만은 역설계되어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도록 문항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데이터 입력 시 18번 문항은 반대값으로 변환하였음을 밝힌다. 18번 문항을 반대값으로 변환함으로서 설문문항의 합산값 이 개인주의 지표가 될 수 있었다.(이후 18번 문항은 18R로 표기한다.)

3. 연구 결과

3.1. 요인분석

먼저, 개인주의 설문문항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모형을 선택하여 베리맥스 직교회전을 적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2는 그 결과이다.

표 2. 요인분석: CN-JP-NL-KR

성분 행렬				신뢰도	순위	요인명	고유값	누적 기여율	구성 문항
1	2	3	4						
.715	.091	.183	.049	0.772	1	독자 행동	2.55	18.2%	16
.685	.066	.335	.096						19
.662	.153	.095	.093						13
.635	.186	.016	.304						15
.634	.368	.089	.169						14
.240	.722	.041	.022	0.684	2	이익과 의사 결정	2.10	33.2%	12
.226	.689	-.09	-.07						21
.033	.643	.142	.398						03
.099	.641	.201	.280						02
.157	.099	.780	-.19	0.632	3	타인 무관심	1.83	46.3%	20
.158	.115	.700	.188						07
.170	-.046	.674	.318						06
.334	.061	-.00	.782	0.641	4	자신의 의지	1.69	58.4%	05
.118	.219	.200	.725						04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4가지 요인을 각각 '독자행동', '이익과 의사결정', '타인 무관심', '자신의 의지'로 명명하였다. 1요인 '독자행동'은 행동의 독자성이나 단독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2요인 '이익과 의사결정'은 집단보다 개인이익의 우선, 타인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태도 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3요인 '타인 무관심'은 주변인에 대한 무관

심이나 방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구성되었다. 4요인 '자신의 의지'는 자신의 마음상태 강조와 자신 의지대로의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4개 요인의 누적기여율은 58.4%였으며,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한 결과, 모든 요인의 계수가 0.6을 상회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요인구성 문항에 들지 못한 문항은 7개로서 1, 8, 9, 10, 11, 17, 18R 문항이었다.

이 요인분석 결과를 다른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한 또 다른 요인분석들과 비교하였다. 표 3은 한국인 데이터를 267명이 아닌 639명 전원을 바탕으로 요인분석한 것이고, 표 4는 한국은 제외하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 데이터로만 요인분석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성분행렬은 표기하지 않는다.

표 3. 요인분석: CN-JP-NL-KR(All)

순위	요인명	고유값	누적 기여율	신뢰도	구성 문항
1	독자 행동	2.670	19.072	.788	16, 13, 14, 19, 15
2	개인 이익과 사고의 독립	1.897	32.620	.610	1, 12, 10, 2
3	타인 무관심	1.802	45.488	.633	20, 6, 7
4	자신의 의지	1.613	57.009	.640	4, 5

표 4. 요인분석: CN-JP-NL

순위	요인명	고유값	누적 기여율	신뢰도	구성 문항
1	독립 행동	2.15	15.4%	0.69	13, 14, 16, 19
2	타인 무관심	1.85	28.6%	0.63	20, 7, 6
3	자신의 의지	1.55	39.7%	0.61	4, 5
4	독자적 의사결정	1.51	50.5%	0.49	1, 2, 12
5	경제적 독립	1.28	59.6%	0.35	9, 8

이 여러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타인 무관심' 요인과 '자신의 의지' 요인은 항상 나타나며 구성문항도 동일하고, 신뢰도도 높아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매우 뚜렷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 행동' 요인 또한 다소 구성문항의 변동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번 요인인 '이익과 의사결정' 요인은 이에 해당하는 표 3, 4의 요인의 구성문항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안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평균비교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들 요인들은 특정 국가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타인 무관심' 요인은 일본이, '이익과 의사결정' 요인은 네덜란드가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요인들을 각각 일본적 요인, 네덜란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상의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개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그 하위개념은 어떤 문항들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을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하위 개념으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또는 집단주의)를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닌 복수의 하위개념의 구성체로 볼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이 특정 국가들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2. 군집분석

이어서 설문참가자들을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몇 개의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군집분석 모형은 K-평균군집분석모형을 선택하였다. 군집분석에서 군집의 수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식화된 절차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2군집, 3군집, 4군집의 3차례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3군집 분류를 채택하였다.

표 5. 군집분석

	1군집	2군집	3군집	ANOVA	
	291명 27.8%	288명 27.6%	466명 44.6%	F	p
독자행동	.03778	.33774	−.23233	30.88	.00
이익과 의사결정	.76621	.26361	−.64139	301.32	.00
타인 무관심	−.68482	1.19323	−.30980	680.39	.00
자신의 의지	.61424	.04603	−.41202	115.55	.00

1군집의 참가자들은 '이익과 의사결정'요인의 군집중심값이 높게 나타났고, 2군집의 참가자들은 '타인 무관심' 요인의 군집중심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군집의 참가자들은 모든 요인에 걸쳐 가장 낮은 군집중심값을 보였다. 따라서 각각의 군집명을 '이익과 의지 개인주의자', '타인무관심 개인주의자', '집단주의자'로 명명하였다. 군집과 국가간의 교차분석을 실

시한 결과, 1군집 '이익과 의지 개인주의자'는 네덜란드가 180명, 2군집 '타인무관심 개인주의자'는 일본이 154명, 3군집 '집단주의자'는 한국이 22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중에서는 3군집의 인원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이제곱 점정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566.9, p<.001).

군집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의 특징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기도 했지만, 군집출현율을 바탕으로 개인주의에 관한 세대 구분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있어서 세대 차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구분된 세대도 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군집분석 결과만을 논하는 것에 그친다.

3.3. 국가별 비교

여기서는 개인주의의 국가간 비교를 논한다. 개인주의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산분석 결과는 21개 문항 모두에 걸쳐 유의차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은 매우 높았다. 이어서 1위를 차지한 문항들을 각 변인들의 수준별로 정렬하여 제시하고 해당 요인명을 기재하였다(표 8). 표 8에서는 국가 외에도 성별, 연령, 군집 등의 변인도 다루었다.

국가별 비교에서 가장 먼저 논할 것은 국가별 개인주의 설문의 평균값이 '네덜란드,일본>중국≫한국'의 순서를 띤다는 점이다. 한국의 평균값은 네덜란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큰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다. 데이터의 최대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1개 설문(18R)을 제외한 전 문항에 걸쳐 최대값이 4에 그쳐, 극히 집단주의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문항은 한 개도 없었으며, 5개 문항(6 8, 12, 18R, 20)을 제외한 16개 문항에 걸쳐 최하위(4위)를 기록하여 극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문항수를 비교하면 네덜란드가 10개 문항, 중국이 6개 문항, 일본이 5개 문항이었다.

표 6. 국가별 평균비교

	CN	JP	NL	KR	합계	ANOVA	
	271	251	262	267	1051	F	p
1	2.6	2.6	2.8	2.1	2.5	27.3	.00
2	3.1	3.6	3.7	2.6	3.2	108.0	.00
3	2.4	2.8	3.2	2.0	2.6	85.0	.00
4	3.1	3.3	3.3	2.6	3.1	33.1	.00
5	3.3	2.7	3.1	2.6	2.9	31.7	.00
6	2.7	2.9	2.0	2.0	2.4	66.5	.00
7	2.7	3.0	2.3	2.2	2.5	35.8	.00
8	2.5	2.2	1.9	2.2	2.2	22.3	.00
9	3.7	3.4	3.3	2.7	3.3	67.0	.00
10	2.4	2.7	3.0	2.4	2.6	29.7	.00
11	2.3	2.5	2.3	2.0	2.3	12.9	.00
12	1.9	2.9	3.5	2.2	2.6	201.7	.00
13	3.3	3.2	3.2	2.6	3.1	30.6	.00
14	2.8	3.0	3.3	2.3	2.8	66.6	.00
15	3.1	2.8	3.3	2.5	2.9	40.4	.00
16	3.2	2.9	3.0	2.3	2.9	43.3	.00
17	2.4	2.6	3.0	2.1	2.5	58.9	.00
18R	3.3	3.3	3.6	3.4	3.4	5.9	.00
19	3.1	3.0	2.8	2.2	2.8	45.2	.00
20	2.4	3.0	1.9	2.2	2.4	70.1	.00
21	2.9	3.4	3.9	2.6	3.2	102.1	.00
평균	2.82	2.94	2.98	2.37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		21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항들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면서 조사대상국 4개국 간의 다중비교도 함께 실시하였다(표 7). 다중비교 결과, 한국과 다른 3나라들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19개 문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일본과 네덜란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상술한 국가별 평균비교 결과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개인주의 지표의 출현빈도 그래프를 그려보았다(그림 1). 개인주의 지표의 최소값은 28, 최대값은 93, 평균값은 58.21이었다. 그래프의 전체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띠었다. 앞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개인주의지표가 낮은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 반면, 네덜란드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친 분포를, 중국은 중앙에 위치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다중비교 결과 유의차를 보인 문항의 수

	CN-JP	CN-NL	CN-KR	JP-NL	JP-KR	NL-KR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 (21개 문항 중)	16	18	19	15	19	19

표 8. 1위 문항의 수준별 정렬

국가			성별			연령(10년)			군집		
요인	문항	수준	요인	문항	수준	요인	문항	수준	요인	문항	수준
자신의 의지	5*	CN		10	여성	타인 무관심	6	10대	이익과 의사결정	2*	1군집
	8*			18R*			9		이익과 의사결정	3*	
	9*		타인 무관심	20			10*		자신의 의지	4*	
독자 행동	13*			1*	남성	이익과 의사결정	12		자신의 의지	5*	
독자 행동	16*		이익과 의사결정	2*		독자 행동	13		이익과 의사결정	12*	
독자 행동	19*		이익과 의사결정	3		독자 행동	14*		독자 행동	15*	
자신의 의지	4*	JP	자신의 의지	4		독자 행동	15*			18R*	
타인 무관심	6*		자신의 의지	5		독자 행동	16*		이익과 의사결정	21*	
타인 무관심	7*		타인 무관심	6		독자 행동	19			1*	2군집
	11*		타인 무관심	7		타인 무관심	20		타인 무관심	6*	
타인 무관심	20*			8		자신의 의지	5		타인 무관심	7*	
	1*	NL		9			11*	30대		8*	
이익과 의사결정	2*			11		이익과 의사결정	21			9*	
이익과 의사결정	3*		이익과 의사결정	12			1*	40대		10*	
	10*		독자 행동	13		이익과 의사결정	2			11*	
이익과 의사결정	12*		독자 행동	14		이익과 의사결정	3		독자 행동	13*	
독자 행동	14*		독자 행동	15*		자신의 의지	4		독자 행동	14*	
독자 행동	15*		독자 행동	16		타인 무관심	7		독자 행동	16*	
	17*			17			8			17*	
	18R*		독자 행동	19*			17*		독자 행동	19*	
이익과 의사결정	21*		이익과 의사결정	21*			18R		타인 무관심	20*	

* p<.05, ※ 알아보기 쉽도록 배경을 회색 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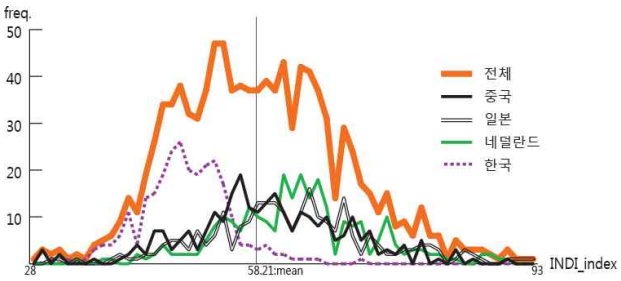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개인주의지표의 출현빈도

3.3.1. 한국의 강한 집단주의 성향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국가별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한국이 극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을 제외하면 호프스테드의 IBM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호프스테드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가 개인주의지표(IDV) 80점으로 4위(53개국가중). 일본은 46점으로 22위. 한국은 18점으로 4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강한 타이완이 17점, 44위로 한국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극히 집단주의적인 결과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게다가 호프스테드의 조사 당시에 비해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였으므로, 경제성장과 개인주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 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극히 낮은 개인주의 성향, 즉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낸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조사결과대로 한국이 정말로 집단주의적이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문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집단주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으며(김서균, 2003), 일상적으로도 중국인들이 더 개인주의적이라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둘째로 한국만이 오프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친숙성과 개인주의 성향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명확한 연구결과는 없다. 김영기와 한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 활용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주의는 또래와 집단의 영향을 받는 집단적 성

2) http://k.daum.net/qna/view.html?qid=2dzDn

향을 띠며, 도준호 등(2000)은 인터넷이 개인주의화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를 강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공존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사지역이 보수성을 강하게 띠는 영남지역이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지역 간의 개인주의 성향 차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2. 일본 개인주의의 특성

한국의 강한 집단주의 성향 다음으로 고찰할 결과는 일본의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다. 엠브리의 '스에무라'(1939),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1946) 이래 일본을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는 오랜 기간동안 학계의 보편적인 틀로 수용되어져 왔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학자들은 노사협조적 회사관과 타인에 대한 동조 성향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에 주목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집단주의적 문화특성에서 찾는 설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일본인 학자들도 나까네의 '다테사회의 인간관계(タテ社會社會の人間關係)', 도이의 '아마에의 구조(甘えの構造)' 등 집단주의 모델에 근거한 일본인론을 주창하며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다'라는 전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다라는 느슨한 합의는 이미 80년대 이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기 시작했고, 여러 실증적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인 집단주의론에 대한 비판은 개인주의적인 서구인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두드려져 보이게 되었다는 지적과, 일본연구의 대부분이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해 작은 촌락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들에 기초한다(황달기, 1996). 또한 일본보다 집단주의적 특성을 더 강하게 보이는 국가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인 집단주의론에 대한 반론은 하마구찌(1982, 2003) 등에 의해 정교화되어, 개인주의-집단주의 틀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개인-간인(間人)'이라는 새로운 이론틀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박용구, 2007).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본의 개인주의는 네덜란드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이 집단주의적이라는 상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일본이 1위를 차지한 문항들을 보면(표 8), 일본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타인 무관심' 요인을 구성하는 3개 문항(6, 7, 20)모두 일본이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일본이 최하위(4위)를 차지한 문항은 18R 한 개였다.[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집단주의가 사실 이상으로 확대된 원인에 대한 황달기(1996)의 설명에 동의하며 또다른 원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일본을 집단주의 사회로 보게 된 원인에는 서구의 일본연구가 사생활, 즉 일상생활면보다 직장에서의 생활에 맞춰져서일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경영학과 사회학 분야에서는 회사에서의 태도나 직무가치를 조사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질문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답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는 구속받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남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일본인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개인주의적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설문조사의 20, 7, 6번 문항의 답변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대상을 사적인 일상생활에 맞추면 결코 집단주의적이지 않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태도를 묻는 문항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본 설문에서 일본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집단주의 프레임으로 일본사회를 바라볼 때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모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주의적 태도와 공적 영역에서의 집단주의적 태도를 띠는 일본인의 복합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4)]

---

3) 애정이 식어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베네딕트가 논한 '기리(義理)'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일본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한국보다도 낮다(최장근, 2008).

4) 황달기도 공적 영역에서 집단주의가 잘 드러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학자들은 일본인의 행동양식 중, '왜 집단주의적 성향에만 집착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본사회의 여러 집단 중, 특히 회사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황달기, 1996, p.460. 이택릭체 강조는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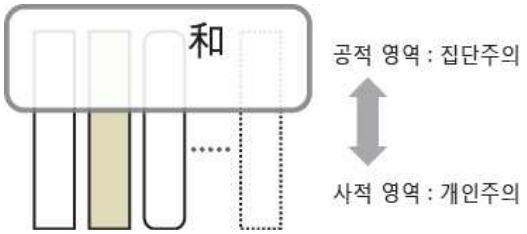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융합

3.3.3. 네덜란드의 개인주의

네덜란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국 중 가장 개인주의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21개 문항 전체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1위 문항수도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으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적인 상식과 쉽게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결과도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이익과 의사결정'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모두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독자 행동' 요인의 구성문항도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한 문항에 '자신의 의지'요인과 '타인 무관심' 요인의 구성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타인 무관심에 속하는 6번, 20번 문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7번 문항에서도 일본, 중국보다 평균값이 낮아, 더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개인주의적인 네덜란드지만 타인 무관심과 관련된 문항들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피상적인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가 개인주의에 입각한 조직주의에 기초해 있다고 본 박홍규(2008)의 논의나, 미국의 유치원교육이 친사회적이며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안준희(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듯 네덜란드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이 높은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각 개인의 자립이 중요하므로 내 개인의 이익만큼 타인의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고, 각 개인이나 소집단의 구체적인 이익추구를 '국익'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추상적인 집단의 이름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높은 기부문화(박홍규, 2008, p.152)나, 파업에 대해 공감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사회를 구성하는 타자에 대한 믿음과 연대의식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구 선진국 대부분에 보편화되어 있는데, 일견 집단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연대의식과 개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하위를 차지한 또 하나의 문항(8번 문항)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인들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재산 형성에 대해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자식세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독립되어 있는 현실(박홍규, 2008, p.94)에 비춰볼 때 상반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자식에 대한 부의 증여가 드물고,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이 적어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3.4. 중국의 개인주의 정도

다음으로 중국의 결과를 살펴보자. 중국의 개인주의는 네덜란드와 일본보다는 낮지만, 한국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개인주의 정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는가 하면, 낮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직무가치를 비교한 김서균(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장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조직몰입도를 비교한 김규남과 신만수(2001)의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장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모두 호프스테드의 개인주의 문항과 장기지향성 문항을 다루며, 비교 대상 국가들도 상당수가 겹치므로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나타났다. 두 연구가 진행된 시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그 사이에 중국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문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조사지역이 상해 위주였고, 한국의 조사지역이 영남지역이었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인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문항, 즉 1위 문항들은 '독자 행동' 요인과 관련된 문항(13, 16, 19)들을 비롯하여, 5, 8, 9번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문항, 즉 최하위를 차지한 문항은 12번 문항 한 개에 그쳤다.

3.4. 성별 비교

성별은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평균비교와 분산분석 결과, 성별은 개인주

의에 있어서 별 영향력이 없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의 차이는 극히 미미했으며, 21개 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도 6개(1, 2, 15, 18R, 19, 21번 문항)에 그쳤다. 남성의 전체 평균값과 여성의 전체 평균값을 단순 비교하면, 각각 2.81과 2.74로서 남성이 다소 높게, 즉 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가 적어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지만, 3개 문항(10, 18R, 20)을 제외한 18개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이 더 개인주의적이고 여성은 집단주의적이라는 이러한 결론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Cross & Madson, 1997; Madson & Trafimow, 2001. 김윤명, 2009. p.30에서 재인용; 김서균, 2003, p.233).

21개 문항 중 여성의 평균값이 높은 10, 18R, 20번 문항을 음미해보면, 자기집 방문에 대한 부담감(20번 문항), 애정없는 결혼에 대한 반감(18R)으로서 여성의 입장이나 가치관과 부합되는 응답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가족보다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10번 문항에 높게 긍정한 것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 변인 해석에 있어서 관심을 갖은 점은, 남성성 지표가 낮고 비교대상국 중 남녀평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네덜란드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개인주의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인가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데이터를 네덜란드로 국한하여 성별에 따른 평균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와 비교하였다(표 9). 그 결과, 4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도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여성이 1위를 차지한 문항도 한 문항 더 적어졌다. 분석 전의 막연한 예측으로는 남녀평등성향이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관한 남녀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네덜란드 같은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남성이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별 평균비교의 전체와 네덜란드의 비교

	평균			여성이 1위를 차지한 문항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
	남성	여성	차이		
전체	2.81	2.74	.07	10, 18R, 20	6
네덜란드	3.04	2.92	.12	14, 18R	5

3.5. 연령 비교

성별에 이어, 인구통계학적 주요 변인의 하나인 연령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개인주의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개인주의 지표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선형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r=.027, p=.39).

이어서 평균비교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고른 분포를 보이는 연속형 변수인 연령을 10대, 20대, 30대, 40대의 10년 간격의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다뤘다. 평균비교 결과, 10대의 평균값은 2.82(S.D.=1.08)로 나타나, 40대(M=2.80, S.D.=1.01)와 30대(M=2.77, S.D.=0.97)보다 더 높았다. 20대는 가장 낮았다(M=2.71, S.D.=1.02).

표 8의 수준별 1위 문항을 살펴보면, 10대는 10개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40대와 30대는 각각 8개와 3개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20대가 1위를 차지한 문항은 한개도 없었다. 거꾸로 최하위를 차지한 문항은 20대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1위를 차지한 문항 중에는 '독자 행동' 요인의 구성문항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10대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이익과 의사결정' 요인이 다소 많은 가운데 여러 요인이 골고루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총 7개 문항에 걸쳐 통계적 유의차를 보여, 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성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가 적고, 상관분석 결과 연령과 개인주의지표 간에 선형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연령대에 따른 개인주의 정도의 변화는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30-39세가 개인주의적이고, 40세 이상은 집단주의적이며, 20대는 30대보다 집단주의적이고, 학생과 주부가 집단주의적이라는 심정희(2007)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심정희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이 집단주의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대가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10대가 가장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고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김윤명(2009, p.2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요약하자면 10대 후반까지는 독자행동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다가 20대가 되

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30대와 40대에 접어들면 다시 이익 추구성향의 개인주의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20대가 집단주의적인 이유는 이들 연령대가 대학이라는 소속감과 귀속력이 높은 집단에 속해 있으며,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개인 간의 경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국한된 이유이겠으나 20대 초반 남성은 매우 집단주의적인 조직인 군대에 소속된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나이에는 민족주의와 같은 집단주의적 열정에 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성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를 별도로 분석한 후, 이를 전체와 비교해 보았다. 네덜란드는 조사대상국들 중 권력거리가 가장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세대 차이도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차이가 연령에 따른 개인주의 변화 폭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있어서도 작은 권력거리가 연령에 따른 개인주의의 변화폭을 둔화시키지는 않았다. 20대가 가장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전체데이터에 비해 네덜란드의 경우가 연령(세대)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네덜란드 참가자들의 리커트 스케일의 선택폭이 넓어서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10. 연령 평균비교의 전체와 네덜란드의 비교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차이(max-min)
전체	2.82	2.71	2.78	2.80	0.10
네덜란드	2.92	2.85	3.05	3.07	0.22

3.6. 군집 비교

마지막으로 군집 변인을 살펴본다. 상기 분석한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군집별 평균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예상대로 2군집-타인무관심 개인주의와 1군집-이익과 의지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2군집: N=3.17, 1군집: N=2.95), 그리고 3군집-집단주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N=2.42) 드러났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21개 문항 모두에 걸쳐 유의차가 나타났다. 1위 문항을 고찰한 결과에서도 2,1군집이 모든 1위 문항을 차지한 가운데, 3군집은 거의 모든 문항에 걸쳐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료한 결과는 군집분석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군집은 본 연구의 개인주의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강한 변인임에 틀림없으나, 본 군집에 대한 논의를 보편화하거나 다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유용한 변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3.7. 변인들의 개괄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국가, 성별, 연령, 군집을 살펴보았다. 유의차를 보이는 문항수를 근거로 변인들의 영향력을 '국가=군집>연령, 성별'로 순위지을 수 있다. 여기서 유용성이 적은 변인인 군집을 제외하면 국가가 가장 의미있고 유용한 변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개인주의는 원래부터 비교문화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여전히 국가 및 문화의 경계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주요한 구분기준임을 재확인하였다. 반면 성별이나 연령같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4.1. 연구의 성과

본 연구의 성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의 개인주의를 비교하여, '네덜란드,일본>중국≫한국' 순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으며,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일본의 개인주의를 파악하는 틀로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적용하는 관점을 제시한 점과 네덜란드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도 사회적 연대의식과 같은 집단주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논의한 점은 본 연구의 독창적인 성과이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 구성요소를 파악하였고, 그 요인들이 특정 국가와 관련을 강하게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비

교 검토하여, 국가가 여전히 가장 유용하고 의미있는 변인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 등의 변인은 유용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애초에 개인주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가 기획되지 않아. 연구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명료한 연구관심과 연구설계에 기초하여 연구를 질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오프라인으로, 중국, 일본, 네덜란드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점과, 한국의 경우 전국적 균형을 맞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규남, 신만수 (2001).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종업원 조직몰입특성에서 개인적 가치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30(3),* 877-904.

김기옥, 윤원아 (2000). 소비자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관한 척도개발, *한국소비자학연구, 11(1),* 1-14.

김서균 (2003). 아시아 5개국 현지 근로자들의 직무가치 성향분석. *사회연구 5호,* 215-243.

김영기, 한선 (2005). 인터넷의 횡단적 속성과 이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호,* 564-596.

김윤명 (2009).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특성: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차원에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21호,* 10-44.

도준호, 조동기, 황상재, 박지희, 이승아 (2000).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0-31. 인성문화.

박용구 (2007). '個人' 對 '間人': 일본인론의 탈오리엔탈리즘화 과정. *일본연구논총 26호,* 365-392.

박홍규 (2008). *작은 나라에서 잘 사는 길.* 서울: 휴먼비전.

심정희 (2007).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행동, 의복 추구 이미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11),* 1574-1585.

안준희 (2009). 그다지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미국인들: 미국 중산층의 친사회적 아동 기르기. *한국문화인류학 42(1),* 111-143.

조긍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최장근 (2008). 일본의 이혼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이혼구조와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66집,* 329-347.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1),* 1-19.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중국,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황달기 (1996). 일본사회를 설명하는 '집단모델'의 특징과 한계. *일본학보 제 37집,* 451-467.

Benedict, R. (1974). *국화와 칼: 일본문화의 틀*[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김윤식, 오인석 역). 서울: 을유문화사(원저는 1946에 출판)

Hofstede, G.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나은영 역). 서울: 학지사(원저는 1991에 출판)

Hui, C. H. (199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 - 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濱口惠俊 (2003). 間の文化と獨りの文化. 知泉書館.

하마구찌 에슌 濱口惠俊, 쿠몬 슌뻬이 公文俊平 편저. (1992). *일본인과 집단주의.*[日本的集団主義] (황달기 역). 서울: 형설출판사(원저는 1982에 출판)

원고접수 : 09.12.14
수정접수 : 10.01.06
게재확정 : 10.01.18